

코스콤, 올해 상반기 통합자문플랫폼 출시 예정

»» 프레스룸

금융IT 발전을 위한 코스콤의 다양한 활동들을 빠르게 알려 드립니다.



- 증권사·운용사·자문사가 협력해 통합온라인 자문플랫폼 구축

- 투자자문사들의 개인고객 맞춤형 서비스 시장 확대를 돕는 금융·IT플랫폼

☒☒ 코스콤·NH투자증권·한국포스증권 등과 자문플랫폼 구축 중

① 코스콤(사장 홍우선)은 온라인 투자자문 및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「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」을 NH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DB금융투자 등 증권사 및 직판운용사와 함께 구축 중

②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이란 자문사가 투자자들에게 좀더 밀착된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포트폴리오 구성, 메신저 기반 비대면 고객관리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플랫폼

③ 중소형 자문사들이 포트폴리오 관리 및 투자자 상담 등 보다 중요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수업무들을 금융IT플랫폼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장 수요로 만들어진 플랫폼.

외국에서는 TAMP (Turnkey Asset Management Program/Platform) 라고 불림

☒☒ 단순 포트폴리오 관리를 넘어 데이터 분석 기능을 탑재한 플랫폼 준비 중

① 국내에서도 17년 주요 증권사가 협력해 MTS기반 자문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개인 자문시장이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하는데 큰 기여

② 코스콤 통합자문플랫폼은 단순 포트폴리오 관리를 넘어 글로벌 리딩업체를 벤치마킹해 고객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. 로보어드바이저와재무컨설팅, 여기에 세무상담까지 결합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편의 제공 예정

③ 코스콤은 3월 중으로 자문사를 대상으로 한 통합 온라인 자문플랫폼 설명회 진행할 예정.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가시화해 올해 상반기 플랫폼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음